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2.10.25 기사]

산업안전인증 'S마크' 1만번째 발급 기업 나왔다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인증제도인 'S마크(사진)' 발급건수가 1만건을 기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태양광·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오성엘에스티(주)가 개발한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 번째 S마크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S마크

지난 1997년 도입된 S마크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부품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2,909개 업체에서 1만건의 인증을 취득했다. 외국기업에 발급된 S마크도 지난해까지 3,240건에 달했다.

S마크는 국제적 안전기준을 적용해 취득시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지난해까지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0억7천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토종 안전인증 S마크 1만번째 발급기업 배출

안전보건공단 “품질력 향상과 수출증대에 기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의 1만번째 장비(부품)가 탄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25일 “충남 아산에 소재한 오성엘에스티(주)의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번째 S마크 인증을 하고 이날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Safety(안전)의 머리글자를 딴 S마크는 공단이 산업기계와 부품의 안정성

을 인증하는 제도다.

97년 제도도입 이래 중소기업의 품질력을 국가기관이 인증해 해외수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S마크를 받으면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공단은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이 10억7천8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S마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면

서 외국기업의 인증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10개국에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4천여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천240건이 인증을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백헌기 이사장은 “토종 인증마크인 S마크는 품질력 향상과 해외수출 증대, 제품 사용자의 안정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산업안전인증 'S마크' 1만건 발급 돌파

2012-10-25 10:35:09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인증제도인 'S마크'가 발급건수 1만건을 돌파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태양광·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오성엘에스티(주)가 개발한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 번째 S마크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도입된 S마크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부품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2909개 업체에서 1만건의 인증을 취득했다.

외국기업에 발급된 S마크도 지난해까지 3240건에 달했다.

S마크는 국제적 안전기준을 적용해 취득시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지난해까지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0억7천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산업/기업

산업안전인증마크 'S마크' 발급 1만건 돌파

최종편집 : 2012-10-25 09:23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나 부품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산업안전 인증제도인 'S마크' 발급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25일) 태양광·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오성엘에스티(주)가 개발한 'LCD 패널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 번째 'S마크'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S마크'를 취득한 국내 기업은 현재까지 2천909개사로, 'S마크' 인증제품의 지난해 해외 수출 실적은 10억7천8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S마크’를 아시나요? 1만번째 주인공 탄생

2012-10-25 07:27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의 1만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Safety’의 머릿글자를 딴 ‘S마크’는 산업기계 및 부품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오성엘에스티의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가 1만번째 인증 취득 주인공이 됐고 25일 밝혔다.

오성엘에스티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수출 경쟁력을 갖추므로써 내년 매출목표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백헌기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의 결함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S마크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 해외수출 증대와 더불어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 S마크 인증제품 해외수출 실적 > (단위: 만달러)

구분	계	'97-'03	'04	'05	'06	'07	'08	'09	'10
금액	1,078,860	228,182	47,851	47,951	51,285	64,389	112,576	283,272	144,730

실제로 지난 1997년 도입 이래 S마크 안전인증 제품은 높은 품질력과 해외수출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천정 조명등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원격조정릴에 대하여 S마크 인증을 획득한 릴테크(주)는 공단과 협정을 맺은 스위스 인증기관(SGS)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하여, 유럽, 미주 등에 매년 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해 정전기 제전장치인 이오나이저(Ionizer)에 대하여 S마크 인증을 획득한 (주)선재하이테크는 공단과 협정을 맺은 독일 인증기관(TÜV Rheinland)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에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오므론’ 안전사업부 주임은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연간 120%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전년대비 매출이 74%나 줄었다”고 말했다. 또 안전장치 생산업체 ‘선광전자’ 대표이사는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좋은 품질 등에 대한 소문으로 판매량이 1년새 무려 5배나 늘었다”고 S마크의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억7800만 달러를 달성했다. S마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외국기업의 안전인증 신청도 꾸준히 늘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개국에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3760건의 인증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3240건에 대하여 인증했다.

안전인증 S마크, 중소기업에 날개를 달아준다

-안전보건공단, 오성엘에스티(주)에 만 번째 인증 수여식

김마를내 기자 hope0021@daum.net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왼쪽부터 오성엘에스티 대표, 안전보건공단백헌기 이사장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이하 공단)은 'Safety'의 머릿글자를 딴 'S마크'가 1997년 도입 이래 높은 품질력과 해외수출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S마크'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이며, 국제적 안전기준 적용으로 품질력에 대한 인정과 함께 S마크 인증 취득 시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등의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반기는 기색이다.

공단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9개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맺고 S마크인증 취득 시 CE마크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25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오성엘에스티(주)의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 번째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오성엘에스티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의 결함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S마크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 해외수출 증대와 더불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인증 'S마크', 1만번째 인증

안전보건공단, 25일 오성엘에스티(주)에 인증수여

2012년 10월 25일 (목) 17:53:12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한국토종 안전인증제도인 'S마크'의 1만번째 제품이 인증을 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25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오성엘에스티(주)의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번째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1만번째로 S마크를 받는 오성엘에스티는 지난 10월 2일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의 서면심사와 제품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오성엘에스티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수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도 매출목표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의 결함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S마크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 해외수출 증대와 더불어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fety'의 머릿글자를 딴 'S마크'는 안전보건공단이 산업기계 및 부품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이다. 지난 1997년 도입 이래 S마크 안전인증 제품은 높은 품질력과 해외수출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안전인증 'S마크' 발급 1만건 돌파

연남뉴스 | 기사입력 2012-10-25 06:00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인증제도인 'S마크' 발급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태양광·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오성엘에스티(주)가 개발한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 번째 S마크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도입된 S마크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부품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2천909개 업체에서 1만건의 인증을 취득했다.

외국기업에 발급된 S마크도 지난해까지 3천240건에 달했다.

S마크는 국제적 안전기준을 적용해 취득시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지난해까지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0억7천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dkkim@yna.co.kr



산업기계·부품류 안전인증 'S마크' 1만건 넘어서

기사입력 2012-10-26 08:00:02 |

안전공단, 올해 1400건 추가인증 예상...일본·영국 등 외국업체 요청 증가세

S마크 인증시 CE마크 등 자동 발급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 발급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25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LCD패널 제작사인 오성엘에스티(주)의 이날 인증에 따라 지난 1997년 도입한 S마크의 발급건수가 1만건에 달했다. 세이프티(Safety)의 머릿글자를 딴 S마크는 공단이 산업현장에 안전한 기계·부품을 유통,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자율인증 제도다.

이날 기준으로 총 2909개 업체가 1만건 인증을 취득하게 됐으며, 지난해 424개사가 총 1500건을 취득, 연간 가장 많은 인증이 이뤄졌다. 올해 신청건을 감안할때 약 1400건의 추가 인증이 예상된다.

S마크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외국기업의 신청도 꾸준히 늘어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10개국에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3760건의 인증을 신청, 이중 3240건이 최종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0억7800만달러를 달성했다.

공단은 최근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9개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맺고, S마크 인증 취득시 CE마크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현기 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의 결함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S마크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 해외수출 증대와 더불어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우병기자 miver@

토종 안전인증 S마크, 제품력·수출·안전성 일석삼조의 효과 보여

2012년10월25일 13시 10분

(인천=뉴스와이어) 2012년10월25일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fety'의 머릿글자를 딴 'S마크'는 안전보건공단(백현기 이사장)이 산업기계 및 부품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이다.

1997년 도입 이래 S마크 안전인증 제품은 높은 품질력과 해외수출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인증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2,909개 업체가 1만건의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24개 업체가 1천 5백여건으로 연간 가장 많은 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도 신청물량을 고려해 약 1,400건의 인증을 예상하고 있다.

S마크는 국제적 안전기준 적용으로 품질력에 대한 인정과 S마크 인증 취득시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 등의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기를 얻고 있다.

공단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9개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맺고 S마크 인증 취득시 CE마크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기업 입장에서 해외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시 약 3~4개월간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S마크를 통한 해외인증 취득시 2~3개월에 500만원 이하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공단의 S마크 인증에 따른 유럽연합 CE마크 취득 지원 : 163개사 957건('97 ~ '11)

실제로 '09년 천정 조명등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원격조정릴에 대하여 S마크 인증을 획득한 릴테크(주)는 공단과 협정을 맺은 스위스 인증기관 (SGS)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하여, 유럽, 미주 등에 매년 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0~'11년 정전기 제전장치인 이오나이저(Ionizer)에 대하여 S마크 인증을 획득한 (주)선재하이테크는 공단과 협정을 맺은 독일 인증기관(TÜV Rheinland)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에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억 7,800만 달러를 달성했다.

S마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외국기업의 안전인증 신청도 꾸준히 늘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개국에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3,760건의 인증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3,240건에 대하여 인증하였다.

한편, 공단은 10.25(목)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오성엘에스티(주)의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번째 인증 수여식을 갖는다.

'중소기업, 성공의 날개를 달다' S마크 중소기업 경쟁력에 도움 줘...

심은영 news@newswave.kr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fety'의 머릿글자를 딴 'S마크'는 안전보건공단(백현기 이사장)이 산업기계 및 부품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이다.

1997년 도입 이래 S마크 안전인증 제품은 높은 품질력과 해외수출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인증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2,909개 업체가 1만건의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24개 업체가 1천 5백여건으로 연간 가장 많은 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도 신청물량을 고려해 약 1,400건의 인증을 예상하고 있다.

S마크는 국제적 안전기준 적용으로 품질력에 대한 인정과 S마크 인증 취득시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 등의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기를 얻고 있다.

공단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9개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맺고 S마크 인증 취득시 CE마크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기업 입장에서 해외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시 약 3~4개월간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S마크를 통한 해외인증 취득시 2~3개월에 500만원 이하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09년 천정 조명등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원격조정릴에 대하여 S마크 인증을 획득한 릴테크(주)는 공단과 협정을 맺은 스위스 인증기관 (SGS)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하여, 유럽, 미주 등에 매년 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0~'11년 정전기 제전장치인 이오나이저(Ionizer)에 대하여 S마크 인증을 획득한 (주)선재하이테크는 공단과 협정을 맺은 독일 인증기관(TÜV Rheinland)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에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억 7,800만 달러를 달성했다.

S마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외국기업의 안전인증 신청도 꾸준히 늘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개국에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3,760건의 인증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3,240건에 대하여 인증하였다.

한편, 공단은 10.25(목)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오성엘에스티(주)의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번째 인증 수여식을 갖는다.

오성엘에스티는 10월 2일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의 서면심사와 제품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오성엘에스티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해외수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도 매출목표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의 결함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S마크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 해외수출 증대와 더불어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현장 안전 지키는 'S마크'...수출 경쟁력도 높아

25일 인증 1만건 돌파

최종수정 2012-10-25 17:41

2009년 천정 조명등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원격조정릴에 대하여 S마크 인증을 획득한 힐테크는 공단과 협정을 맺은 스위스 인증기관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해, 유럽, 미주 등에 매년 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0~2011년 정전기 제전장치인 이오나이저(Ionizer)에 대해 S마크 인증을 획득한 선재하이테크는 공단과 협정을 맺은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해 중국, 대만, 일본 등에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S마크'가 1만건의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1997년 도입된 S마크는 산업기계 및 부품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Safety'의 머릿글자를 따 만들었다. 이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이다. 현재 S마크 인증 취득시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 등의 해외인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9개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맺고 S마크 인증 취득시 CE마크 등 해외인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909개 업체가 1만건의 인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424개 업체가 1천500여건으로 연간 가장 많은 인증을 취득했다. 올해도 신청물량을 고려해 약 1400건의 인증을 예상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기업 입장에서 해외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시 약 3~4개월간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S마크를 통한 해외인증 취득시 2~3개월에 500만원 이하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억7800만달러를 달성했다. 외국기업의 안전인증 신청도 꾸준히 늘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개국에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3760건의 인증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3240건에 대해 인증했다.

한편, 공단은 25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오성엘에스티의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번째 인증 수여식을 시행했다.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의 결함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S마크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 해외수출 증대와 더불어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제품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업

아산 '오성엘에스티' S마크 1만 번째 인증 획득

기사입력 : 2012-10-25 14:45 [천안=윤원중 기자] 지면 게재일자 : 2012-10-26 면번호 : 15면

아산시 음봉면 오성엘에스티(주)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의 산업 안전 인증 제도인 'S마크 1만 번째 인증'을 획득했다.

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원장 윤동현)은 25일 태양광·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오성엘에스티(주)에서 백헌기 이사장을 비롯 공단 및 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대한 S마크 인증 수여식을 실시했다.

'Safety'의 머리글을 딴 'S마크'는 공단이 산업기계 및 부품에 안전성을 인증해 산업 현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다.

오성엘에스티는 지난 2일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의 서면심사와 제품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오성엘에스티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해외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내년도 매출목표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천안=윤원중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인증 'S마크' 발급 1만건 돌파

2012년 10월 26일 (금)

전상현기자/jsangh@joongboo.com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인증제도인 'S마크' 발급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안전보건공단은 25일 태양광·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오성엘에스티(주)가 개발한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 번째 S마크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도입된 S마크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부품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2천909개 업체에서 1만건의 인증을 취득했다.

외국기업에 발급된 S마크도 지난해까지 3천240건에 달했다.

S마크는 국제적 안전기준을 적용해 취득시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지난해까지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0억7천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토종 안전인증 S마크, 중소기업에 성공의 날개 [충남타임즈]
2012/10/25 09:30 입력



제품력·수출·안전성, '일석삼조' 효과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오성엘에스티(주)의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S마크 1만번째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Safety'의 머릿글자를 딴 'S마크'는 안전보건공단이 산업기계 및 부품에 안전성을 인증하여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로 1997년 도입 이래 S마크 안전인증 제품은 높은 품질력과 해외수출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오성엘에스티는 10월2일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의 서면심사와 제품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오성엘에스티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수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도 매출목표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의 결함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S마크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 해외수출 증대와 더불어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2909개 업체가 1만건의 인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에는 424개 업체가 1500여건으로 연간 가장 많은 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도 신청물량을 고려해 약 1400건의 인증을 예상하고 있다. [안성원 기자 ahnseong79@cntimes.kr]

토종 안전인증 S마크, '일석삼조' 효과

제품력·수출·안전성 등 경쟁력 확보 도움

2012년 10월 25일 (목) 13:54:02

김형준 기자 hjkim@tenews.kr

[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fety'의 머릿글자를 딴 'S마크'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현기)이 산업기계 및 부품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다.

1997년 도입 이래 S마크 안전인증 제품은 높은 품질력과 해외수출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인증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2,909개 업체가 1만건의 인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에는 424개 업체가 1,500여건으로 연간 가장 많은 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도 신청물량을 고려해 약 1,400건의 인증을 예상하고 있다.

S마크는 국제적 안전기준 적용으로 품질력에 대한 인정과 S마크 인증 취득시 유럽지역 표준마크인 CE 등의 해외인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9개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맺고 S마크 인증 취득시 CE마크 등 해외인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기업 입장에서 해외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시 약 3~4개월간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S마크를 통한 해외인증 취득시 2~3개월에 500만원 이하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천정 조명등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원격조정형에 대해 S마크 인증을 획득한 할테크(주)는 안전보건공단과 협정을 맺은 스위스 인증기관(SGS)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해 유럽, 미주 등에 매년 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0~2011년 정전기 제전장치인 이오나이저(Ionizer)에 대해 S마크 인증을 획득한 (주)선재하이테크는 안전보건공단과 협정을 맺은 독일 인증기관(TUV Rheinland)으로부터 CE마크를 동시에 취득해 중국, 대만, 일본 등에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S마크 인증제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억7,800만 달러를 달성했다.

S마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외국기업의 안전인증 신청도 꾸준히 늘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개국에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3,760건의 인증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3,240건에 대해 인증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오성엘에스티(주)의 LCD 패널 시험 및 검사장비에 1만번째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오성엘에스티는 10월 2일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고 서면심사와 제품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오성엘에스티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수출 경쟁력으로 내년 매출목표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의 결함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S마크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 해외수출 증대와 더불어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현재 인쇄업 재해발생 현황은...

김아름내 기자 hope0021@daum.net

기사입력시간 : 2012년 10월25일 [04:48:00]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현기)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인쇄사업장을 찾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관계자와 안전보건 대책을 논의했다.



**안전공단 이사장 소사업장 방문
감김사고 등 재해예방 대책 논의**

안전보건공단 백현기 이사장이 24일 경기도 광주시의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사업장에서 현장 관계자와 제품 생산에 따른 감김·끼임사고와 사다리 추락재해 발생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재해예방 시설 등을 확인하고, 용접 등에 따른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와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공단은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작동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경영을 강화해 산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백현기 이사장은 인쇄업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감김이나 끼임사고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으며, 공단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지원 및 근로자 건강관련 지원 현황 등을 살폈다.

이에 앞서, 공단 이사장 등은 서울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을 찾아 인쇄업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4월 체결한 서울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 이행 사항 점검 및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아주경제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등록 2012-10-25 15:43

< 동정 >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4일 경기도 광주의 한 플라스틱 가공 공장과 이천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재해예방 시설을 점검했다.

'산업현장 점검으로 사고예방'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2.10.25 11:22

공단 24일(수), 경기도 지역 물류센터 신축현장 등 방문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시 기술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

백헌기 공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24일(수) 경기도 광주시의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사업장에서는 현장 관계자와 제품 생산에 따른 감김·끼임사고와 사다리 추락재해 발생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을 찾아 재해예방 시설 등을 확인하고, 용접 등에 따른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와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공단은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작동실태를 점검하는 현장경영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사진설명 > 백헌기 공단 이사장(작업 중인 근로자 뒤쪽)이 작업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소모초한국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019면 종합

산업현장 안전보건 점검 나서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시 기술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 백헌기 공단 이사장과 관계자 등은 지난 24일 경기도 광주시의 소규모사업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와 제품 생산에 따른 각종 재해 발생에 대한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재해예방 시설 등을 확인하고,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와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공단은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작동실태를 점검하는 현장경영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환경일보

[인물동정]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2012년 10월 25일 09:25

환경일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재해예방 시설 점검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0월24일 경기도 광주의 한 플라스틱 가공 공장과 이천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재해예방 시설을 점검했다.

안산·시흥공단내 화학물질 산재 3년간 증가세

연업뉴스 | 기사입력 2012-10-25 16:29

(안산=연업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안산·시흥공단에 유해위험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3년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에 따르면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는 2010년 47건, 지난해 50건, 올 8월까지 42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화학물질접촉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이 40건, 화재가 28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폭발로 10명, 화재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학물질 접촉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산업재해를 유발한 화학물질로는 황산 8건, 질산 7건, 가성소다 6건이었으며, 구미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불산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학물질 접촉 산업재해에 따른 피해자 대부분은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괴사하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공단 내 사업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주요 관리대상 물질로는 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이 7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금속인 크롬 620곳, 산·알칼리·가스류에 포함되는 수산화나트륨 506곳 순으로 나타났다.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14곳이었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에 따른 재해 발생 시 기관별 협조체계 구축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소방서 이봉용 예방과장은 "구미사고 당시 기관별로 상황을 공유하지 못해 소방대원이 불산에 물을 붓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 김병진 원장은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양하므로 이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만 있다면 재해대응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산시청에서 열린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간담회'에는 안산시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young86@yna.co.kr

시간제 근로자 비중 사상 처음 10% 돌파

임금 근로자 가운데 파트타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10% 돌파는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비정규직, 근로시간 증가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근로 형태 및 비임금 근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임금 근로자 수는 1773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 4000명(1.3%) 늘었다. 정규직이 30만 7000명(2.7%) 증가했고 시간제·한시직 등 비정규직은 8만 3000명(1.4%)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많이 포함된 일일근로자의 감소 폭(9만 1000명)이 가장 큰데 이는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8월 건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6.6%나 감소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근로자(8.8%), 용역근로자(1.4%)의 비중도 늘었다.

특히 다른 근로 형태에 비해 임금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올 8월 18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 한 달 임금은 지난해 6~8월 60만 4000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60만 7000원이 됐다. 1년 동안 0.5%(3000원)가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인 3.5%(7만 20 00원)나 지난해와 올해의 최저 시급 인상률(6%)에도 턱없이 못미친다.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확대

올 6~8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246만원, 비정규직이 139만 3000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04만 원에서 106만 7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임금은 제자리인데도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8월 주당 19.9시간에서 올 8월 20.1시간으로 길어졌다. 이 기간 정규직 근로시간이 0.6시간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임금 근로자들의 주 40시간 근로 실시 비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8월 53.5%에서 올 8월 62.8%로 높아진 것이다. 특히 정규직의 주 40시간 비율은 68.2%로 지난해보다 9.4% 포인트 올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내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눈에 본다

80여 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3년도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다음달 23~24일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KOTRA 등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별 부스에서 인사 담당자가 채용 상담을 하고 40여 개 기관은 현장에서 채용설명회를 연다. 또 고졸자 채용이 많은 기관 위주로 '고졸 채용 정보 전용관'도 운영해 고졸 구직자에게 특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부대 행사로 이력서 등 취업 전문 컨설팅과 모의면접 등이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25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job.alio.go.kr)를 운영한다. 다음달 6일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박람회 참여를 위한 사전 등록을 받는다.